

부모의 공동체규범과 가정교육*

Practice in Norm of Community by the Parents & Home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 사 李 映 浩

교 수 池 英 淑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Young- Ho, Lee

Prof.: Young-Sook, Chi

〈목 차〉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practice in norms of community by parent influence on home education.

The samples were obtained from 945 parents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level of the practice in norms of community by parent were insufficient. 2) the practice in norms of community by par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of home education. 3) the practice in norms of community by parent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evaluating than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home education.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업화이후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변화는 가정생활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거의 공동체적인 의식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표면화되어 전체에 대한 개인의 우위와 존엄을 인정하는 가치관

* 본 연구는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post-doc course)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임.

이 보편화되면서 가정 안에도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이 파고 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는 풍조가 우세하게 되었다(김태길, 1997).

이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도 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완전한 도구로 전락하는 도구적 가족주의(*instrumental familialism*)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장경섭, 1994). 또한 한국가족은 구성원들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며 특히 부모-자녀간에는 헌신과 사랑, 보호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들이 자기 가족의 안락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중심적인 태도가 사회전체의 공동체적 연대로 확산되지 못하고(신용하, 장경섭, 1996) 사회적으로는 가족집단의 이익추구가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 빈곤을 악화시키는 반공동체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인 가족주의가 배금주의와 개인주의와 맞물리면서 가족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배금주의와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가족생활 자체도 점차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가족주의 사회이나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 범위를 뛰어넘을 시민사회로의 규범과 공동체적 의식이 교육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가족은 더 이상 전체사회에 유익한 일차집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이재경, 1994).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가정병리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이들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임희섭, 1995). 한상복(1982)은 그에 앞서 앞으로의 시민사회에서는 공적인 관계와 생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공동체규범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현섭(1994)은 한국사회를 무규범의 사회로 전락하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그 주원인으로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다.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장완숙(1998)은 한 인간의 사람됨은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오늘날 한국의 가정교육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녀가 공동체적 규범을 내면화하여 책임있고 자율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규범을 과연 얼마나 전달하고 있는냐고 하는 사회화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부모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규범의 내면화의 정도는 자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사회화(가정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것의 내면화정도가 높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움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가정(假定)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시민으로서의 사회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는 일차적인 과정으로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이 가정교육의 관리 및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가정교육과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적의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준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규범

공동체규범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동된 의식이 행위의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각기 서로 다른 개인의식을 갖는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규범은 개인의식을 초월하

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나아가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수직문화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이는 조선조에 성행했던 향약(鄉約)에서 특히 잘 알 수 있다. 향약은 말 그대로 鄕村의 自治規約(동아출판사, 1985)으로 향약에는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환난상휼(患難相恤), 예속상교(禮俗相交)의 4덕목¹⁾이 있었고 이에 의해 같은 마을사람들의 행동이 규제되고 구성원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공동체생활을 영위하였습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지금도 농촌과 같은 소규모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체면과 염치가 개인의 일탈행위에 규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규범은 주민들 상호간에 기대되는 이상이 표면화되는 것이라 하였다(한상복, 1982). 그러나 복잡한 대규모의 도시사회에서는 그 구성원의 70% 이상이 전입시민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의 산만한 대인관계에서 그들에게 공통된 사고와 행동의 규범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므로 그들간에 체면이나 염치도 사라져 더 이상 자기행위에 대한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도시민의 상황이다.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인구의 수가 많고 밀도가 높으며 이질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도시 사람들 상호간에는 가족과 친족, 친지, 이웃 관계 등 친밀한 제 1차적 관계가 약화되고 서로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간에 피상적이고 익명성을 띤 제 2차적 관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차간에 서로가 잘 모르는 처지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낯선 사람들간에 친절과 상호편의성의 공식적인 행동방식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간의 대인관계는 의심과

불신, 적대관계로 까지 나타난다고 한다(한상복, 1982). 또한 우리사회의 큰 문제는 시민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무질서라는 지적이 있다(임홍빈, 1999).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해볼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간의 산업화과정에서 아무리 서구적 사고에 길들여지고 자본주의적 삶에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국민에게는 원래부터 체질 속에 품고 있는 전통적인 정서인 공동체의식이 있다고 한다(윤후상, 1999).

미래의 사회구조가 더욱 분화되고 더욱 전문화될 수록 각기 다른 입장과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문화란 곧 그 특정분야에 대한 대다수의 비전문화를 의미하므로 각 부분의 유기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전문가는 다수의 비전문가와 관련된 분야를 책임지게 되는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회적 결과도 중요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는 쉽게 발견되거나 규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임희섭, 1995).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사회에서는 공적인 관계와 생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공동체 윤리와 규범이 절대로 필요하며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시민윤리 또는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가져보지 못한 서구적인 개념이며 우리의 도시형성과 도시화과정은 서양과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가 확립해야 할 시민윤리는 서양의 시민윤리와 달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한상복, 1982)과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각각의 이해와 권리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근대적 방식과 배려와

1) 향약은 본래 송나라에서 성리학파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생겨난 지방자치의 규약이다. 이를 여씨(呂氏)향약이라 하며, 그 중요한 덕목은 4가지로 첫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둘째, 잘못은 서로 고쳐 준다(過失相規), 셋째, 사람을 사귄 때는 서로 예의를 다한다, 또는 좋은 풍속을 서로 나눈다(禮俗相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다(患難相恤)이다. 조선조에 널리 퍼진 향약은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이며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덕목이 강조되었다고 한다(중앙문화사, 1989)

공동체의식이라는 재래의 덕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신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한도현, 1999).

공동체 윤리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친화(親和)적 공공도덕(禮)의 확립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씨를 숭상하는 기풍의 진작이다(안병주, 1996). 예(禮)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씨란 타인을 생각함에 있어서 자신을 척도로 삼아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하는 전통윤리의 하나인 서(恕)의 개념이다(지영숙, 1996).

최근에 친화적 공공도덕의 확립이나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이동원의 조사 연구(1996)에 따르면 배려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절, 양보, 작은 도움 베풀기, 봉사, 필요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기, 인사, 남에 대한 배려,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 절약, 환경보호 등 10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봉사와 필요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기를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본인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타인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질서문화와 배려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길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대상 가운데 23%의 사람들이 학교에서 질서, 배려문화에 대하여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가정에서도 질서, 배려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가정이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회복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가족의 대외관계 정도가 높은 가족일수록 질서 및 배려 문화의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외국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2. 윤리규범의 습득과 가정교육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및 공익성

의 빈곤으로 인한 윤리적 황폐화 현상이다(박종주, 김성관, 손충기, 심대섭, 1992). 윤리(倫理)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 인륜도덕의 원리이다(동아출판사, 1985). 따라서 윤리교육이란 바로 인간교육이며 윤리학의 연구대상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이다.

여러 철학자들은 인간을 그 의식활동의 측면에서 이성적 요소와 비이성적 요소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 존재라고 파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구분하였고,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능동적인 작용과 수동적인 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칸트는 인간의 심성을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하고, 이성을 이론적 이성과 실천적 이성으로 구분하였다(윤명로, 1985). 또한 조선조 유학자인 퇴계(退溪)이황도 四端七情說에 관하여 논할 때, 四端을 理之發, 七情을 氣之發이라고 한 것도 이성적인 것(理)과 비이성적인 것(氣)에 대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대동문화연구원, 1981).

윤리적 행위란 이러한 인간의 의식구조가운데 이성적 측면의 활동과 관계하는데, 윤리적 행위란 도덕적 실천을 의미하므로 이성적 활동 중에서도 칸트가 지적한 실천적 이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보다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오히려 비이성적인 요소이다. 충동, 정념, 욕구등으로 대표되는 비이성적 측면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인 측면의 요소로서 일반 동물이나 이성적 사고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비이성적인 요소들은 이성적 사고에 앞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비이성적 요소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바를 수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성적 사고가 충분한 성인의 경우도 비이성적인 요소에 의한 욕구나 충동의 힘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려 깊은 또는 학식있는 유명인사나 지식인들이 反 倫理的인 과오를 범하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비이성적인 측면의 힘이 이성적인 측면의 작용에 앞서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윤리, 도덕함양의 요소는 올바른 행위의 습관화에

있다. 이는 '性相近也, 習相遠也'(論語)라는 공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기본성격은 비록 서로 같다고 하여도 습관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도 끝내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조순, 1997).

그러므로 윤리의식, 德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화함으로써 비이성적 행위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성적, 윤리적 생활이 습관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그들의 이성적 능력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스스로 시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윤리교육이란 머리로서 배운다(學)의 의미보다 몸으로 반복하여 익힌다(習)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 도덕의 함양에 있어서 학교교육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의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말을 제대로 구사하기 전까지가 임계기간으로서 이때에 "해서는 안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2의 본능으로 체득해야 하는데(전병재, 이시형, 광배희, 김문조, 1994)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바른 행위를 반복하여 몸에 익히고 그들의 그릇된 습관을 바른 습관으로 시정하여 주는 곳은 바로 가정(家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의 함양 및 실천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여기에 윤리규범 습득(習得)의 장(場)으로서 가정생활 및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가정교육의 계획, 수행, 평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공동체규범 실천정도,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수행 및 평

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정교육의 평가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이다. 조사대상으로는 해당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자료는 모집단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을 병행하였다. 즉 서울시의 25개 지역구에 각각 60부의 설문지를 가족생활주기에 균등하게 배분한 후 배포하였다. 총 1500부의 설문지를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배포, 수집하였는데 이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1097부였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945부이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규범

공동체규범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기대되는 바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서 친화적 공공도덕의 준수와 남을 해아리는 마음씨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원(199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였고,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 등으로 돕고 있다',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 '평소 환경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평소 표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N(%)	비 고
부모연령	20대	65(6.9)	M=41.38 Std=8.42
	30대	354(37.4)	
	40대	362(38.5)	
	50대이상	163(17.2)	
부모교육수준 (수학년수로 측정)	~중졸	83(8.8)	M=13.61 Std=2.72
	고졸	368(38.9)	
	대졸	446(47.3)	
	대학원 이상	41(5.0)	
가족생활주기 (동거자녀중 첫 자녀의 연령으로 측정)	미취학 아동기	190(20.1)	M=15.76 Std=10.35
	초등교육기	233(24.7)	
	중등교육기	109(11.5)	
	고등교육기	118(12.5)	
	대학교육기	183(20.7)	
	성인기	112(11.9)	
주관적 계층의식	상	71(7.5)	
	중의상	441(46.7)	
	중의하	348(36.8)	
	하	85(9.0)	
가족원 수	2인	11(1.2)	M=3.95 Std=.89
	3인	280(29.6)	
	4인	464(49.1)	
	5인	734(14.2)	
	6인 이상	56(5.9)	

정을 밝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성적(높은 소득)을 강요하지 않는다’의 총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규범에 대한 신뢰도는 .784로 나타났다.

2)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행해질 가정교육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척도는 지영숙·영호(1997)의 척도 즉,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부모됨을 생각하였다’,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한다’, ‘자녀의 행동습관이나 언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관련한 타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의 4개문항에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태

교에 소홀함이 없었다’와 ‘가정교육에 대한 의견은 부부가 일치하려고 애쓴다’의 2개문항을 첨가한 6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개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21로 나타났다.

3) 가정교육의 수행

가정교육의 수행은 실제로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가정교육 행동을 의미한다. 가정교육의 수행척도는 지영숙·이영호(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정교육에 대한 기존의 방침이 있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한다’,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눈 여겨 살핀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한다’의 5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가정교육에 대한 수행척도의 신뢰도는 .773으로 나타났다.

4)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교육의 전반적인 실시결과로서 부모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교육평가 척도는 단일 문항으로 '우리 집의 전반적인 가정교육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5) 응답척도의 구성

부모의 공동체규범,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응답척도는 모두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체규범에 포함된 문항은 모두 9개의 문항으로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의 분포를 갖는다.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에는 모두 6개문항으로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의 사이에서 분포하게 되며, 가정교육의 수행 문항은 모두 5개로서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의 분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평가는 단일문항으로 1점에서 5점의 분포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백분율과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표 2>),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연구문제 1>의 결과 및 해석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는 어떠한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3 참조>). 먼저 9개문항을 모두 합한 전체 척도의 값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45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값은 31.66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9개 문항으로 다시 나누어 구한 평균값은 3.52로 잘 모르겠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의 중간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부모들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개별 문항에 따라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의 문항은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가 3.98점으로 가장

<표 2> 분석에 포함될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부모 연령 IAG	교육 수준 ED	주관적 체중의식 EC	자녀의 연령 SAG	가족원 수 SIZ	공동체 의식 CBA	계획 CPL	수행 CIM	만족도 SY13
IAG									
ED	-.122**								
EC	-.085*	-.322**							
SAG	.341**	-.142**	-.114**						
SIZ	.008	.084*	-.006	.276**					
CBA	.031	.0003	-.080*	.061	.002				
CPL	-.069	.144*	-.174**	-.013	-.006	.398**			
CIM	-.065	.007	-.038	.004	.017	.415**	.463**		
SY13	.013	-.059	-.111**	-.019	-.069	.319**	.290**	.241**	

* P<.01, ** P<.001

〈표 3〉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

변수명	문항내용	응답유형에 따른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전체의 비교	신뢰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				
BA1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다.	.3	1.6	20.5	53.2	14.3	3.70	.87	m=31.855 std=4.707 min=15 max=45 .7202	
BA2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	.6	10.2	10.9	50.9	27.4	3.94	.92		
BA4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40.6	34.8	8.3	12.7	3.6	2.04	1.15		
BA6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 등으로 돕고 있다.	9.0	39.6	13.1	33.1	5.2	2.86	1.13		
BA8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	.3	7.1	10.6	59.3	22.8	3.97	.80		
BA9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	3.9	5.7	14.1	41.4	34.9	3.98	1.04		
BA10	평소 환경보호에 애쓰고 있다.	1.1	13.8	16.1	53.7	15.4	3.69	0.93		
BA11	평소 표정을 밝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3.0	6.0	9.1	65.6	18.9	3.97	0.74		
BA22	나는 가족에게 좋은 성격(높은소득)을 강요하지 않는다	1.5	13.4	11.5	58.9	14.6	3.72	0.92		

높았고 그 다음은 '나는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와 '나는 평소 표정을 밝게 가지려고 노력한다'가 공히 3.97점으로 나타나 위의 세문항이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인 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이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는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로서 2.04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품이나 금전등으로 돕고 있다'로서 2.86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응답유형에 따라 '정말 그렇다(5점)'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나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로서 1/3이 넘는 34.9%가 반응하였고 그 다음이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가 27.4%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유형에서는 '나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에 가장 많은 40.6%가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관계되는 문항에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 자원봉사, 이웃사랑, 그리고 환경보호같은 시간, 에너지, 금전등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문항에서는 실천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이는 이동원(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의 전반적인 의식개선 및 실천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2〉의 결과 및 해석

가정교육에 대한 관리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백분율과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가정교육의 관리행동은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가정교육에 대한 수행', 그리고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4〉참조).

먼저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전체의 값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30점의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은 23.58점으로 나

〈표 4〉 가정교육에 대한 관리행동(계획-수행-평가)

척도명	문항내용	응답유형에 따른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의 비교	신뢰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부모됨을 생각하였다.	1.9	8.0	12.0	45.5	32.6	3.99	.97	m=23.58 std=3.404 min=10 max=30	.621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태교에 소홀함이 없었다.	1.9	18.7	14.6	49.2	15.6	3.58	1.02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한다.	.7	8.0	3.8	52.7	34.7	4.13	.87		
	자녀의 행동습관이나 언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4	7.8	6.7	60.0	25.1	4.01	.82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8	10.6	12.4	57.8	18.4	3.82	.88		
	가정교육에 대한 의견은 부부가 일치하려고 노력한다.	1.0	6.6	6.3	58.8	27.3	4.05	.83		
가정교육에 대한 수행	가정교육과 관련한 타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6	7.5	6.3	58.2	27.3	4.04	.83	m=20.07 std=2.532 min=11 max=25	.773
	가정교육에 대한 기존의 방침이 있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한다.	.1	4.1	10.2	59.4	26.2	4.08	.73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대체로 짐작을 하는 편이다.	.2	5.7	17.4	60.7	16.0	3.87	.75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눈여겨 살핀다.	.1	3.3	5.5	57.0	34.1	4.22	.70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한다.	.4	7.6	15.2	57.8	18.9	3.87	.82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	우리 가정의 가정교육에는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6	5.3	19.2	57.8	17.1	3.86	.78		

타났다. 이를 6개문항으로 나눈 평균값은 3.93점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조금 못 미치는 점수이다.

개별문항의 평균값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한다'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교육에 대한 의견은 부부가 일치하려고 노력한다'가 4.05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는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태교에 소홀함이 없었다'가 3.58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로 3.82점이었다.

한편 응답유형에 따라 '정말 그렇다(5점)'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한다'와 '가정교육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려고 노력한다'로 각각 총 87.4%와 86.1%가 반응하였다. 전반적으

로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은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가정교육에 대한 수행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전체의 값은 최저 11점에서 최고 25점의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은 20.0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5개문항으로 나눈 평균값은 4.1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정교육의 계획보다는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문항의 평균값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눈여겨 살핀다'가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교육에 대한 기존의 방침이 있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한다'가 4.08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는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대체로 짐작하는 편이다'와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한다'가 공히 3.8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응답유형에 따라 '정말 그렇다(5점)'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문항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눈여겨 살핀다'로서 34.1%인 반면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대체로 짐작을 하는 편이다'는 16%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를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정교육에 대한 수행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가정의 가정교육에는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값은 3.86으로 계획이나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8%가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관리행동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이나 수행에 비해 평가가 낮은 것이 부모들의 겸손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응답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가정교육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응답자의 반응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정확

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연구문제 3〉의 결과 및 해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 및 가정교육의 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공동체규범을 종속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의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beta = .081^*$) 공동체규범의 실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규범과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웃을 돕는데 참여하지 않으며(강완숙, 1998), 물질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자녀에게 경쟁에서 이길 것을 요구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이효재, 1994).

계획을 종속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의 결과 공동체

〈표 5〉 공동체규범, 계획, 수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중회귀분석

	공동체규범		계 획		수 행		평 가	
	b	β	b	β	b	β	b	β
부모연령	.002	.004	-.030	-.075*	-.016	-.053	.001	.014
교육수준	-.034	-.019	.012	.093**	-.037	-.040	-.038	-.131***
자녀연령	.023	.052	-.004	-.013	7.03	.003	-.004	-.047
주관적 계층의식	.448	.081*	.482	.120***	.087	.029	.101	.109***
가족원 수	-.075	-.014	-.018	.005	.042	.015	-.060	-.068*
공동체규범			.283	.391***	.148	.275***	.036	.215***
계획					.268	.361***	.039	.171***
수행							.022	.071*
R ²	.009		.195		.283		.160	
F-Value	1.84		37.884***		52.89***		22.409***	

규범, 주관적 계층의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연령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beta = .391^{***}$),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beta = .12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093^{**}$) 계획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연령은 낮을수록($\beta = -.075^*$) 계획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계획변수의 총 분산 중 19.5%($F=37.884^{***}$)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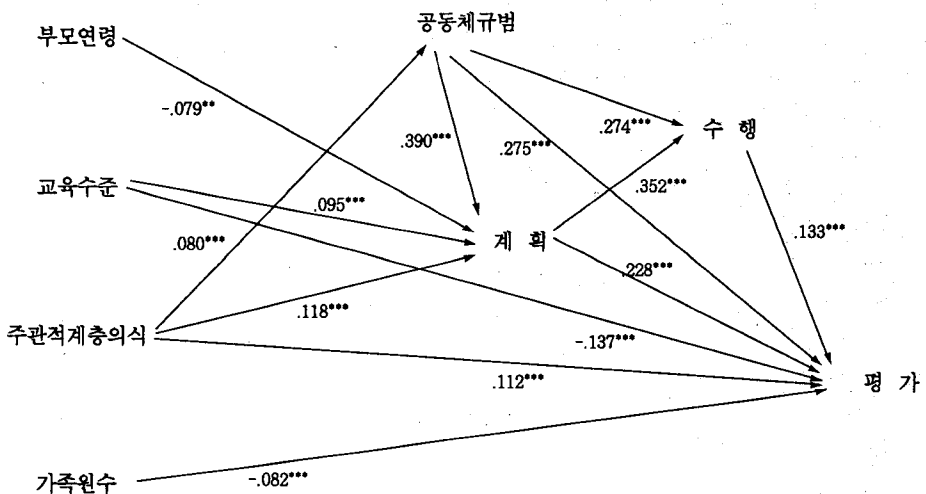
수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는 계획, 공동체규범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계획을 할수록($\beta = .361^{***}$), 공동체 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beta = .275^{***}$)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수는 수행 변수의 총 분산 중 28.3%($F=52.89^{***}$)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공동체규범, 계획,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수행, 가족원 수의 순서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beta = .215^{***}$), 계획을 할수록($\beta = .171^{***}$),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beta = .109^{***}$), 수행을 할수록($\beta = .071^*$) 가정교육에 대

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beta = -.131^{***}$)과 가족원 수($\beta = -.068^*$)는 가정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보다는 계획이, 계획보다는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평가척도의 총 분산 중 16%($F=22.409^{***}$)를 설명하고 있다.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연령은 가정교육의 계획에만 유의한 변수로서 젊은 부모일수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계획과 평가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획을 잘 하는 반면, 평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공동체규범, 계획,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가질수록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 가정교육의 계획 및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수는 평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계획, 수행, 평가가 공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



〈그림 1〉 가정교육의 평가에 대한 제변수의 경로 모형

〈표 6〉 가정교육 평가에 대한 제변수의 경로효과

독립변수	인과적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연령		$(-.079 \times .228) + (-.079 \times .352 \times .133)$		-.021	.034
교육수준	-.371	$(.095 \times .228) + (.095 \times .352 \times .133)$		-.111	.052
주관적계층의식	.112	$(.080 \times .390 \times .228) + (.080 \times .390 \times .352 \times .133) + (.080 \times .274 \times .133)$.123	.100
가족원 수	-.082			-.082	.013
공동체규범	.275	$(.390 \times .228) + (.390 \times .352 \times .133) + (.274 \times .133)$.418	-.099
계획	.228	$(.352 \times .133)$.274	.016
수행	.133			.133	.108

수준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계획도 수행과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였으며, 수행도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의 결과 및 해석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로서 경로모형과 경로효과를 각각 〈그림 1〉과 〈표 6〉에 나타나 있다.

가정교육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모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원 수와 수행은 직접효과만을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137),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가질수록(.112),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082),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275), 그리고 계획(.228)과 수행(.133)을 할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는 높았다.

한편 부모연령은 직접효과는 없지만 계획을 경유한 -.018의 간접효과와 수행을 경유하여 -.003의 간접효과를 미쳐 총인과적 효과는 -.021로 계산되었다.

교육수준은 부정(負)인 직접효과 외에 계획과 수행을 경유하여 정적인 간접효과(.026)를 보임으로써 총인과적 효과는 -.111로 계산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직접효과 외에 공동체의식과

계획을 경유하고, 다시 수행을 경유함으로써 .011의 간접효과를 보임으로써 총효과는 .123으로 높아졌다.

공동체의식은 직접효과 외에 계획과 수행을 경유하여 .107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총인과 효과는 .418로 높게 계산되었다.

계획도 직접효과(.228)에 수행을 경유한 간접효과(.046)가 더해져 .274의 총인과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총인과적 효과는 공동체규범이 가장 높았고(.418), 그 다음으로 계획(.274), 수행(.133), 주관적 계층의식(.123)의 순으로 높게, 그리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가정병리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 한국가족의 문제는 공동체의식과 공동체규범의 회복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시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윤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인식과 그것의 내면화는 가정생활과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가정교육과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는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준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행동이 가정교육의 관리 및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특히 자원봉사, 이웃사랑, 환경보호와 같은 덕목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규범의 실천정도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평가할수록 높았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보다 수행이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다소 계획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나 그 점수는 계획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을 할수록 수행도 높아지고, 계획과 수행이 높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도 높았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수행보다 계획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체 규범의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해서 계획도 많이 하고 수행도 높고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내면화는 가정교육에서 자녀에게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인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사회에 주역이 될 차세대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부모의 공동체규범의 내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규범의 실천은 평상시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시작되어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 공동체규범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동지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공동체규범의 척도구성에 있어서 제한된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고 가정교육에 대한 평가도 주관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점과 관련하여 차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척도의 구성과 가정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가정은 벼랑 끝에 선 가정교육에 대해 거듭 재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는 개인의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족규범을 창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규범과 모습을 지녀야하는 공적 관심과 배려가 함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인간적 가치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때, 부모의 생활신념이나 생활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숙(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 김태길(1997). 우리들의 시민의식: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공선련소식*. 12-15.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 대동문화연구원(1981), [退溪全書(上)],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동아출판사(1985). *한글대사전*
- 박종주·김성관·손춘기·심대섭(1992).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공익성 실태분석연구*.
- 한국청소년연구 1/2.
-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 안병주(1996). 유학과 가정교육-그 전제로서의 '한국 사회와 유교문화'.
- 퇴계학 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윤명로(1985). 전통적 가정윤리교육.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127-155, 한국문화연구원.
- 윤후상(1999).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한겨레신문*. 6월4일
- 이동원(1996). 생활문화의식과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가족, 이웃 그리고 세계로 -배려문화와 자녀교육-*. 심포지움자료집. 61-169
- 이재경(1994). 현대가족의 반사회성. *계간 철학과 현실*. 22호 67- .

- 이효재(1994).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11
- 임홍빈(1998). 자유향유능력, 타인배려가 핵심. 경향신문 3월20일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장경섭(1994). 한국가족의 이념과 실제-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적 모순-. 계간 철학과 현실.22호 51-66.
- 장상희(199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26.161-201.
- 장현섭(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17-143
- 전병재·이시형·곽배희·김문조(1994). 한국가족은 위기인가. 위기에 선 가족-한국 가족의 변화와 전망-. 다산출판사.
- 조 순(1997). 열린 사회를 위한 가정교육. 가족, 이웃 그리고 세계로-배려문화와 자녀교육-. 심포지움자료집. 15-21.
- 중앙문화사(1989). 학생백과대사전. 제1권 한국의 역사편. 1989
- 지영숙(1996).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홍보교육 및 건강가족 모델 정립과 관련하여 -가정윤리적 차원에서-. 대한 가족계획협회 세미나 토의자료.
- 지영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정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75-280.
- 지영숙·이영호(1994).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 인문과학 24. 155-170.
- 지영숙·이영호(1997).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및 수행이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87-9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한도현(1999). 정문연 '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 학술회의개최. 중앙일보 7월1일
- 한상복(1982).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정신문화 복호. 2-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